

## ‘일제 강점기부터 근대화까지’ 사진으로 만나는 광주 100년

오늘부터 17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숲 전시

광주 시민의 삶과 문화·도시화의 여정 기록물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역사현장, 1900년대 광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전시가 열린다. 광주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사진으로 만나는 광주 100년’ 전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지난 7월부터 운영중인 광

주시 시청각자료실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는 일제 강점기 광주 기록물, 광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광주 도시화의 여정, 광주의 사라진 경관과 문화유산 등 4개 분야 70여 점으로 구성했다. 일제 강점기 광주 기록물에서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기숙사 전경 등



1907년 광주교와 수기동(북문 밖) 일대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의 가슴 아픈 시대상과 독립운동, 광복과 관련된 사진으로 생생한 역사현장을 전한다.



1946년 광복절 기념행사(북구 누문동)

광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는 광주장터, 조탄보 등 1900년대 광주의 옛 모습과 빨래터, 지계문, 결혼식



1969년 법원가는 길 농장다리

등 당시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한다. 광주 도시화의 여정은 광주 시가

지 전경과 광주역, 무등경기장 등 주요 지역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담았다. 광주의 사라진 경관과 문화유산은 태봉산, 경양지, 사자공원 수영장, 시민관 등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명소와 풍물을 소개한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역사현장을 담은 한 장의 사진에는 문헌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함과 감동이 있다”며 “광복과 광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애乡심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기업도시 좌초’ 해남 부동산구 연내 매립공사 준공

자금난으로 기업도시개발이 좌초된 해남 부동산구가 올 연말안에 간척지 매립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어떤 용도로 쓰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특수목적 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지난 2015년 사업이 좌초됐다. 부동산구는 해남 금호호 인근 공유수면 바다를 매우는 매립공사로 진행돼 올 연말까지 준공과 함께, 토지로의

위로 꼽힌다. 농민이나 농업경영체에 임대해 경작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했던 이곳이 우여곡절 끝에 좌절된 만큼 다시 기업도시 환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남도청 안팎의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련 법 동향과 연계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척농지는 토지에 염분이 남아 있어 농사를 지어도 일반농경지보다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전제하에 부동산구에 태양광에너지 시설 설치가 부상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

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농지법 제36조(태양도일사용허가 등)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염도 높은 간척농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구 인근에 전남도 블루시티 프로젝트 대상지인 ‘솔라시도’ 구성지구 기업도시가 한창 개발중이어서 시너지효과 기대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연말 매립지 준공이 되는 것은 맞다. 간척지 매립이 농지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1순위는 농지 활용이 될 것이다”면서 “하지만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는 13일 동구 학동 중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12km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 ‘속원 해결’ 광주천 국가하천 승격

재해예방 치수사업·유지관리 국비 투입

광주 도심에 가로지르는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효율적인 관리 기틀이 마련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광주 동구 학동 중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12km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5년간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광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이번에 15개 국가하천 승격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천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된다. 홍수피해 예방 등 치수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재해예방 사업과 유지관리에 국비가 투입된다. 광주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오는 12월까지 광주천의 주요 시설인 하천 제방과 우수·오수관로, 보, 낙차공 등을 인수인계할 계획이다. 이승국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광주시의 오랜 속원이었던 광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막대한 치수사업비와 하천유지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며 “광주천을 문화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정비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전남동부권 휴가철 연안여객 이용객 13만1600여 명...23% ↓

안개·태풍 영향 운항 횟수 줄고 무더위로 관광객 감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11월까지 전남동부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3만1533명으로 지난해

17만1580명에 비해 2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특별수송기간 동안 해상의 질은 안개와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

항 횟수가 줄고 계속되는 무더위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로별 이용객은 지난해 신조선으로 대체한 백야-직포, 순죽-광도 항로는 여객이 증가했으며, 녹동-거문, 녹동-동송 항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

했다. 반면 백야-남도, 여수-연도 항로 등은 여객이 감소했다. 여수해수청에서는 올 여름 특별수송기간 동안 여객선 3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156회 늘리는 한편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수송 지원반을 운영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두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시⇒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두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